

4-26

1.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### '1%' 부자

▶백만장자(millionaire)라는 말은 18 세기 프랑스에서 '백만프랑'<sup>1</sup>을 가진 부자를 가리키면서 처음 썼다.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매년 내는 보고서 '월드 웰스 리포트'는 부자의 기준을 '1 차 주거용 부동산을 뺀 자산 순가치가 100 만달러 이상인 개인'으로 정했다. 2009 년 이 기준에 맞는 부자가 세계에 1000 만명, 우리나라엔 13 만명이었다.

▶우리 부자는 예로부터 땅을 중시했다. KB 금융 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 '한국부자연구'에서 조선 중엽 해남 윤씨 가문이 간척으로 새로운 땅을 만들어 부를 쌓았던 사실을 그 예(例)로 꼽았다. 1950 년대 삼양사 같은 기업이 큰 농장을 경영한 것도 땅과 관련있다고 보았다. (1) 지금 한국에서 자산 순위 1% 부자는 평균 32억 3000 만원어치 부동산을 가졌다. 나머지 사람들이 가진 평균 부동산보다 18 배 많다. 이들은 대개 기업인, 전문직 종사자, 자영업자들이다.

▶지난해 '월가(街: Wall Street)를 점령하라' 시위대는 '탐욕스러운 1%'라며 금융자본가를 공격했다. 그러나 미국의 상위 1% 소득자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. 연간 가구소득이 38 만달러 넘는 1% 중에 의사가 19 만명이고 금융 매니저는 5 만명이었다. (2) 시위대의 과녁(靶子)이 상당히 빗나간 셈이다.

▶경제학에서는 흔히 (3) '난쟁이 행진'이라는 우화(寓言)로 빈부격차를 설명한다. 영국인들이 가진 재산을 키로 바꾼 뒤 키 순서대로 줄을 세워 행진시켰다. 그랬더니 맨 앞사람은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고, 그 뒤로 난쟁이들이 길게 이어지다 마지막에 머리가 구름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 나타났다. 그만큼 1%와 99% 사이 격차가 크다는 얘기다. '머리가 구름 위에 있는' 사람 중엔 비(非)금융권 회사 임직원, 의사, 법조인, 연예인, 프로스포츠선수도 많다. 부자도 생각보다 다양하고, 욕 먹기엔 억울한 부자도 많을 것 같다.

(1)-(3) 韓翻中 **15%**

- (1)
- (2)
- (3)

(4)-(5) 回答題 **10%**

第 1 頁 共 2 頁

<sup>1</sup> Franc: 法國貨幣

本 試 題 採  
雙 面 印 刷

- (4) 밑줄친 (2)에서의 이유를 써 보세요.  
(5) (3)에서 '난쟁이(矮子) 행진'은 무엇을 비유한 말이며, 그 해석을 중국어로 써 보세요.

2. 다음을 가지고 문장이나 단어를 쓰세요. (25%)

- (1) -(아/어) 내다 (보조용언)

문장:

- (2) -르 바에는 (연결어미)

문장:

- (3) -든 -든 (연결어미)

문장:

- (4) 책임을 지다, 저임금, 졸업, 대학생, 누가...?

(모두 합하여 한 문장 만들기)

문장:

- (5) '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'(속담)

뜻:

인용 문장 쓰기:

3. 지금까지 읽은 책(시, 소설, 수필, 자서전 등)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, 간단하게 한국어로 소개해주세요. (15%)

4. 대학원에 들어오는 목적(학습 계획과 미래 계획)을 써 보세요. (35%)